

함평군-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발전 '맞손'



임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협력 "산림소득 작목 육성·새 소득원 창출 기대"

함평군은 지난 16일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재)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 및 임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상의 함평군수,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협약 내용에는 ▲임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등 정보교류 ▲귀농·귀촌인 임산물 교육 ▲산촌 조성 협력지원 ▲우수 임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문 등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 산림 자원 육성 및 임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 군 임야는 전체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지만 넓은 면적 대비 임산물 분야의 소득 작목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산림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군민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설립된 민간 주도 교육 기관으로, 그동안 1,500여명의 산림과 임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왔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 활동 돌입 시민단체 대표 등 35명 구성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오는 23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민단체 대표·학계·경제계·의료계 등 3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70만 전남 서남권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위는 의대신설 발표 이후 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대 유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논의될 신설 의과대학의 설립 방향, 국회사 정부 부처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앞장서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서남권 9개 시군 지자체, 목포대학교와 공동으로 협력해 반드시 의대 및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방침이 결정된 이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공식 기구인 의정협의체가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논의의 잠정 연기함에 따라 실무적인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목포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확정하고 보건 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는 등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 시는 정치권과 목포대학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당·정·학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국토 훼손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신청기한 확대

신안군은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 확산과 화장을 통한 국토 훼손을 줄이기 위해 화장 장려금 제도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까지 확대했다. 신청기한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내 봉안시설의 부재로 인

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목포추모관 휴' 내에 '신안 1004 추모관(봉안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신안 1004 추모관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고, 개장 후 봉안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화장 장려금 제도 개선과 봉안비용 지원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욱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협업...청량요양보호사교육원서 실시



지난 16일, 영광군 청량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광군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업 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청량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대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1월 도입됐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나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엄중해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영광고용복지센터(☎280-015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농작업 편의의자 보급

영암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용 농작업 편의의자(조그리)를 보급한다. 여성농업인 농작업용 편의의자(조그리) 보급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성 고령 농업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확보해 2,635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3일까지 마을대표자(이장)를 통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임대료는 2,000원이며 내구연한(1년) 경과 후 자체 폐기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조그리는 기존 다리 사이로 끼우는 보급형 제품과 달리 허리띠처럼 착용 및 분리가 쉬운 제품이라 농업인 건강 보호와 노동력 절감,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더라

무안군, 홀통·툽머리 해수욕장 미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방문객 위한 현장 상황실 운영

무안군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홀통·툽머리 해수욕장을 미개장하고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더라

도 외부 방문객이 관내 해수욕장을 찾을 것에 대비하여 방역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37일간 현장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실에는 입욕 통제, 방문객 안심콜 시행, 발열 체크, 방역수칙 안

내 등 안전과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배치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해수욕장을 미개장하게 되었지만 우리군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